

낙중학의 성과와 과제 (철학분야) -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미래지향적 의미 탐색 -

장 운 수*

여기에서 일차적으로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이 지난 10년간(2010~2020) 수행해 온 '낙중학 연구' 중에서 철학분야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차원에서 몇 가지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연구원의 낙중학 연구사업은 종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전통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그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 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한 연구성과들이 크게 주목되고, 한주 이진상과 문인들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향후 낙중학의 논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산·구미지역의 도학전통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이 지역의 학문전통과 남명학·여헌학·낙중학의 학문적 유사성, 그리고 인맥 간의 긴밀한 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동강 중류지역의 두드러진 학문경향으로서 우주론적 주제의 탐구, 自得的이고 개방적인 학풍, 실천적인 학문태도를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핵심 단어: 개방성, 낙중학, 남명학, 선산·구미지역의 도학, 자득성, 태극도설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21..85.001>

*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지역의 정신사적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문화의 적극적 모색은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오래되었지만 미래의 가치를 지닌’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학문의 지역적 차이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읽어낼 수 있을 때에 한국성리학은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리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애매한 보편성에서 발견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지역학에 대한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적(local) 특색을 지니면서도 글로벌한 문화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역적인 가치와 글로벌한 가치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洛中學’¹⁾의 기획 의도 또한 지역학적 가치를 탐색하면서도 미래의 학문역량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에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유학은 이론과 실천이 하나로 합치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 理氣論과 心性論을 위주로 한 이론적 내용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순수 성리이론에 대한 탐색이 많지 않았던 낙동강 중류 지역의 학자들과 그 학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성리학에 있어서 낙동강 중류 지역은 통상 영남성리학의 제3지대로서 우도와 좌도, 남명학과 퇴계학의 절충 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접점 문화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즉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종합할 수 있다는 유리함과 자신의 고유

¹⁾ 이 글에서 말하는 洛中學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을 가리킨다. 그런데 洛中이라는 말의 관용적인 의미가 낙동강 중류지역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서술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위해 주체 측의 의도를 따라 洛中을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성을 발현하기 어렵다는 불리함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성리학은 단지 절충지역의 교차문화로서의 성격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학문적 특징과 학파적 전통을 유지해왔다. 이 지역은 이론적 측면에서 빼어난 인물은 많지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 자득적이고 실천적인 학문특색을 일관성 있게 간직하였으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학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2010년 이래 낙중학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국성리학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전통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그 이론적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특정연구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해오며 무려 8권의 총서를 출간해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필자는 여기에서 우선 ‘낙중학총서’에 수록된 철학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주목되는 성과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향후 새로운 모색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낙중학 연구의 주목되는 연구성과와 논의점

1) 낙중학의 내포적 의미 탐색 연구성과

낙중학 연구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가장 먼저 요청되는 작업은 바로 ‘낙중학이란 무엇인가’에 답할 수 있는 내포적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주목되는 연구는 김낙진의 「조선 중기 한려학파의 철학사상」²⁾이다. 김낙진은 이 연구에서 철학사상의 측면에서 한려학파의 특

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계명대학교

정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한려학과의 사상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가지는 어려움을 먼저 고백하였다. 즉 한려학파라고 할 때 그 내부적 동일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특히 학문적 주요 이론이나 관점에서 한강과 여헌 양인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강과 여헌을 하나의 학파로 묶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여기서 드러나는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낙진은 ‘사상의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애쓰며, ‘規模의 학문’과 ‘明體適用의 학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모두 장현광이 쓴 「寒岡行狀」에 등장하는 말인데, 여헌이 한강의 학문을 요약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여헌 자신의 학문적 특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낙진은 이 두 가지 용어가 한강과 여헌 양인간의 학문적 공통기반을 확인하려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추제협 또한 「한려학파와 여헌학」³⁾에서 김낙진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강과 여헌의 ‘明體適用之學’을 비교하였다. 그는 한강에게 있어서 명체적용지학은 심학과 예학의 방면에서 잘 드러나고, 여헌의 경우에는 역학과 성리학의 영역이 여헌학의 정체성으로 정립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이라 하였다.

명체적용의 학문을 통해 한강과 여헌의 사상적 공통기반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규모의 학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애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명체적용지학’이라는 말은 한강과 여헌의 고유한 사상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성리학 일반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정도전과 권근을 위시한 수많은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명체적용의 학문’을 강조하였다.⁴⁾

출판부, 2012), 212~253쪽 所收.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총서4),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70~105쪽 所收.

한강 정구의 성리이론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정도원(「한강 정구의 성리학 체계와 연원」), 추제협(「『심경발휘』와 정구의 심학」), 김현수(「한강 정구의 예학」)의 글을 주목할 만하다.⁵⁾

정도원은 天理와 人欲의 대립구조와 ‘靜中有物’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한강의 성리학 체계와 연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강과 남명의 학문적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강이 心學이나 理學에 초점을 두던 이전의 道學 학풍에서 변모하여 禮學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 道學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강이 예학적 방법론으로 이전 시대의 학술을 이해하고 정리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祖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추제협은 『심경발휘』를 통해 한강의 심학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尊德性의 마음공부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心學의 본질이 尊德性 마음공부의 핵심을 하나의 ‘敬’으로 일관했다. 셋째, 내면의 엄정함을 통해 행동의 올바름을 얻는 ‘敬簡’이라는 학문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심학적 색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제협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론한 부분도 있지만, 敬簡을 통해 한강이 자신만의 독특한 심학적 색채를 드러냈다고 하는 부분에서 특색을 가진다.

여헌 장현광의 사상에 대해서는 추제협(「한려학파와 여헌학」), 이상호(「퇴계학파의 비교를 통해 본 장현광의 성리설」), 정병석(「역유태극의 해석을 통해본 여헌 장현광의 역학사상」), 유권중(「여헌 장현광의 예학」)이 논구하였다.⁶⁾

4) 鄭道傳, 『三峯集』卷4, 策題: ‘會試策’; 權近, 『陽村集』卷12, 記類: ‘義興三軍府舍人所廳壁記’ 참조.

5) 정도원, 추제협, 김현수의 글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총서3)에 수록됨.

6) 추제협, 이상호, 정병석, 유권중의 글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총서4)에 수록됨.

추제협은 한강과 여헌의 명체적용지학을 비교하였고, 한려시비를 중심으로 한강과 여헌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정병석은 여헌의 역학에 영향을 끼친 邵康節 易學을 소개하였고, 여헌과 소강절의 역학 해석의 범주 차이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여헌이 말하는 太極과 易의 관계, 태극의 성격, 兩儀, 四象과 八卦의 형성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정병석은 「易卦總說」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정작 여헌 역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전인 『易學圖說』의 원문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⁷⁾

여헌의 성리사상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유권종의 여헌 예학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헌 예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가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종은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낙중학의 특색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여헌의 성리사상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헌의 예학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헌의 성리학 구도에서 예학은 儀禮 장치를 구비하고 의례적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유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人文을 개인의 심신에 體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유권종에 의하면, 여헌은 자신 및 문인들 혹은 교류하던 學人들의 의례적 실천을 위해서 자신만의 의례 장치를 독자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선배 제현의 학설을 수용하면서 보완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유권종은 바로 이러한 점이 낙중학이 洛上과 洛下の 학맥과 교류하였던 맥락을 관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듯하다고 주장하였다. 유권종은 여헌의 예학이 지닌 독자적인 면모를 말하면서, 爲己之學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예학의 위상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점, 따라서 여헌의 학설로 인하여 예학과 유학 전체와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인

7) 『易學圖說』의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동양철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연석, 「장현광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성리학적 분합론의 연속성」; 황병기, 「장현광 『역학도설』과 하도낙서관」(한국동양철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所收)

식될 수 있는 점, 이 두 가지가 여헌의 당대 혹은 선·후대의 여타 학자들과 비교되는 독자성이자 爲己之學的 성취를 위한 실천방법론의 체계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였다. 유권종의 연구는 여헌의 예학사상 뿐만 아니라 여헌의 성리사상 연구에 있어서 향후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낙중학의 문인록 분석과 지역적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성과

낙중학의 학파 형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김학수의 연구가 단연 돋보인다. 김학수는 『한강문인록』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한강과 여헌 두 학파의 거점 지역이 교차하기는 하지만 양 문인의 인적 교차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강(342명)과 여헌(355명)의 兩門을 동시에 출입한 사람은 20% 남짓한 7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한강과 여헌이 공동으로 강학하던 시기에 한정하여 양문을 동시에 출입한 학자들의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한강학파와 여헌학파의 인적 교차의 세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1985년에 권연웅이 이미 「『회연급문체헌록』 소고」¹⁰⁾라는 글에서 한강의 ‘문인록’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130~211쪽
所收.

9)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강문인록’과 ‘여헌문인록’에서 겹치는 인물은 총55명이다.
郭衛國, 權濤, 金光繼, 金光岳, 金大振, 金四聰, 金尙瑗, 金是聲, 金澆, 金寧, 金應鳴, 金宗一,
金柱宇, 金震護, 盧景倫, 都世純, 柳稔, 朴敏, 朴敏修, 朴晉慶, 裴襲可, 裴尙龍, 裴尙虎,
徐思選, 徐時立, 宋時詠, 申適道, 呂煜, 呂焯, 禹鎮, 禹熙吉, 李道長, 李善立, 李心弘, 李彥英,
李廷郁, 李之英, 李忠民, 李紬, 張乃範, 張以俞, 張悌元, 鄭克後, 鄭四勿, 鄭四象, 鄭秀民,
鄭惟燾, 鄭惟熟, 趙遵道, 崔東亮, 韓夢參, 黃元錄, 黃中信.

10) 권연웅, 「『檜淵及門諸賢錄』小考」(『韓國의 哲學』, 제1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김학수는 이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회연급문록』에 수록된 한강학과의 외연을 그려냈으며, 특히 『蓬山浴行錄』을 통해 한강학과의 지역적 확산을 고찰하였다. 또한 김학수는 낙동강 중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학과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성주지역, 칠곡지역, 현풍-고령지역, 창녕-영산-함안-밀양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인록 분석 자체가 철학적 연구라고 할 수 없겠지만, 향후 낙중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사상사적 의미가 크다. 김학수는 자신의 연구의 향후 과제로서 두 가지 점을 제기하였다. 첫째는 이 글이 지역적 범위를 낙동강 중류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타지역 특히 한강학의 기호지역 전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의점이 되는 서울·경기지역의 한강학파에 대해 고찰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한강학과의 외연이 아니라 내포성에 대한 연구 즉 학풍의 특징이 무엇이고, 인문지리적 환경과 학문적 성격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낙중학의 향후 과제를 위해 충분히 유의해야 할 언급이다.

그리고 총서 5권,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파』에서는 낙중지역의 주요 서원 경영을 통한 낙중학의 전개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학수(「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구본옥(「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김기주(「도동서원과 한강학의 전개」), 추제협(「회연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김낙진(「동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히 구본옥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본옥은 창건된 이후 줄곧 대구지역 유림의 주요한 강학장소가 되었던 연경서원의 講學과 通講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書院志』를 보면 書院會語·語錄·講學會編 등의 名目으로 된 講義 혹은 講會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도 대부분 書院 祭享의 人物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어서 실제의 강학 내용을 추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본옥의 대구지역 유림의 通講錄 분석은 중요한 선행연구로 볼 수 있다.

그는 대구지역 성리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¹¹⁾ 향후 낙중학 연구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다.

3) 한주 이진상과 한주학파에 대한 연구성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의 낙중학 연구성과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한주 이진상과 한주학파에 대한 연구성과이다. 총 8권의 연구총서 중에서 무려 세 권이 한주와 한주학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성과이다.¹²⁾ 이 외에도 제1권(『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에 수록된 두 편의 글이 한주와 한주학에 대해 논하였다.¹³⁾ 한주와 한주학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점은 연구성과의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우선 학문적 위상과 면모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던 한주학파를 주목하여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이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한강과 여현에 비해 한주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또는 한주학파에 비해 한강학파와 여현학파에 대한 논의가 소략하기 때문에) 균형감에서 볼 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이 연구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려면 적어도 한강의 문인 중에서 17세기 대구지역

-
- 11) 구본옥, 『大邱儒賢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퇴계학논집』, 제11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구본옥,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溪東 全慶昌」(『조선사연구』, 제20집, 조선사연구회, 2011); 구본옥, 「석담 이운우의 師承과 交遊에 관한 고찰」(『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7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구본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퇴계학논집』, 제11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참조.
- 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말의 낙중학, 한주 이진상의 삶과 사상』(총서6), 201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근대 시기 낙중학, ‘주문팔현’과 한주학파의 전개』(총서7), 20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의 재전 제자들과 낙중 지역 유현들』(총서8), 2021 近刊.
-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322~351쪽 所收[홍원식, 「이진상의 한주학과 그 연원 및 계승」]; 352~394쪽 所收[최영성, 「한주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 현실적 구현」]

의 유학계를 주도하였던 낙재 서사원과 모당 손처놀이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낙중학 부흥의 계기가 된 임진란 당시 이 지역 유림들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日記類의 분석을 통해 17세기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동향과 사림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지역 학자들의 생활일기 중에서 특히 손처놀의 『慕堂日記』는 많은 유익한 정보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기에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총서 1권,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에서 홍원식은 특히 한주와 한주학파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한주학파를 조선 최후, 최대의 학파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¹⁴⁾ 通看, 活看, 三看法(豎看, 橫看, 倒看)을 중심으로 하여 한주의 성리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영성은 「한주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 현실적 구현」에서 한주 성리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한주철학의 현실적 구현에 대해 그 이론적 기반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다. 최영성은 이진상의 학문과 사상이 '斥邪衛正'의 관점에서 전 학문체계에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하고 철저한 主理思想, 『춘추』의 尊周大義에 대한 뜨거운 관심, 以直養氣의 '直'사상 등이 한주가 척사위정 운동의 이념적 지도자였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총서 6권, 『한주 이진상의 삶과 사상』에서는 한주학의 다양한 면모를 논의하였다. 김기주는 '理發一途說'을 중심으로 하여 한주의 理氣說을 연구하였고, 이형성은 한주의 理學的 '心卽理說'을 고찰하였으며, 추계협은 『心經窺啓』를 중심으로 하여 한주의 '心'主宰성과 尊德性 공부론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성건은 『四禮輯要』를 중심으로 하여 한주의 예학사상을 고찰하였다.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한주학의 총체적인 면모를 다룬 연구서로는 최초이며, 조선 말기 낙중학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한주

14) 홍원식, 「이진상의 '한주학'과 그 연원 및 계승」,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349쪽 참조.

학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¹⁵⁾

그렇지만 수록된 글들의 상당수에서 낙중학의 계승 또는 부흥이라는 특징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 향후 한주의 ‘문인록’이 성실하게 보완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주학과 한주학과의 사상이 낙중학이라는 지역학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구한말 한주 이진상과 비슷한 위상을 지녔던 학자들, 예를 들면 서산 김홍락, 간재 전우 등과 비교해볼 때 한주의 생애와 사상이 어떠한 측면에서 낙중학이라는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지를 확보해야 한다.

총서 7권, 『洲門八賢과 한주학과의 전개』는 ‘洲門八賢’ 즉 한주 이진상의 대표적인 여덟 제자를 다루고 있다. 권오영이 后山 許愈(1833~1904)를, 김낙진이 勿川 金鎮祐(1845~1908)를, 추계협이 俛宇 郭鍾錫(1846~1919)을, 이세동이 膠宇 尹胄夏(1846~1906)를, 전병철이 紫東 李正模(1846~1875)를, 정병석이 韓溪 李承熙(1847~1916)를, 황지원이 晦堂 張錫英(1851~1926)을, 김기주가 弘窩 李斗勳(1856~1918)을 연구하였다. ‘주문팔현’은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스승 한주의 이론을 변호하고 그 학설을 확산시키고자 애썼다. 이 책은 최초로 주문팔현의 사상을 함께 거론하였다는 점과, 종래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던 학자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김낙진은 허유 및 광중석과의 토론을 중심으로 하여 물천 김진호의 성리사상을 고찰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理主氣資說’의 수용 부분의 논의가 주목된다. 김낙진은 물천 김진호의 관심이 ‘균형’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균형이란 豎看 일변도의 학문적 지향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소하고, 실천에서는 橫看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낙진은 물천의 주

¹⁵⁾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말의 ‘낙중학’, 한주 이진상의 삶과 사상』(총서6), 6쪽, ‘책을 펴내며’ 참조.

장이 주리론을 확대하고 심화해가는 同門들의 연구와 입장이 가져올 문제들을 교정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물천의 입장이 한주의 본래 입장과 가깝다고 해석하였다.

추제협은 한주학의 비판적 계승자로서 면우 곽중석의 철학사상을 거론하였다. 그는 면우가 한주학을 적극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조금씩 확보해나갔으며, 스승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자신의 견해와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거나 속고를 거듭했다고 하였다. 즉 면우가 스승 한주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묵수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제협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면우가 한주의 철학을 계승한 양상을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서술했을 뿐, 한주의 철학이 어떠하며 면우는 한주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총서 8권은 ‘한주학의 계승’을 다룬 부분이다. 시대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이며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중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舊學’과 ‘新學’이 교차하는 가운데 구학문 분야에서 대표를 이룬 한주 이진상의 再傳 제자들의 학술사상과 사회활동을 다룬 것이다. 황지원(眞庵 李炳憲), 이행훈(省窩 李寅梓), 김낙진(重齋 金椀), 김기주(晦峯 河謙鎭), 김현수(心山 金昌淑)가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행훈은 「성과 이인재의 철학 지평과 실천」에서 곽중석으로부터 한주학을 이어받은 이인재가 太極과 明德의 의미를 고증하여, 理의 주재성과 心 본체의 완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낙진은 「중재 김황의 心卽理說 옹호와 활동」에서 김황을 한주학단의 마지막 거장으로 묘사하며, 김황이 그린 「東儒心學略圖」가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 여러 학파에 대한 한주학단의 시각이 반영된 心法 전수의 계통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圖’에서 한주를 定齋 柳致明(1777~1861)의 계승자로만 보지 않고, 東岡 金宇顙(1540~1603)과 愚潭 丁時翰(1625~1707)의 매개적 역할도 하였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김기주

는 「회봉 하겸진의 학문활동과 성리학적 특징」에서 『晦峯先生年譜』를 통해 하겸진의 삶과 학문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논구하였다. 그는 한주학이 광종석을 거쳐 하겸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존하며 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수는 「심산 김창숙의 유교 인식과 독립운동의 전개」에서 심산이 사상적으로 한주학파의 문인들과 교류(수업)를 통해 한주학파를 계승하였고, 性理說만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의리를 적극적으로 사회·국가·세계에 적용·실천하려는 사유를 엿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지역의 학자들이 모두 한주학단의 제자들이거나 그 영향권 아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종진은 「한주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심재 조공섭의 비판」¹⁶⁾에서 한주학파에 대한 비판적인 조공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조공섭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중년을 지나서는 대구(달성)의 비슬산 자락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강학에 전념한 인물이다. 그런데 조공섭은 한주 이진상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朱熹와 李滉에 두고 있지만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조공섭은 이진상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면우 광종석과의 서신을 통한 왕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이러한 조공섭의 사례를 통해 낙중학 지역의 사상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심도희는 「공산 송준필의 성리사상과 사회적 실천운동」¹⁷⁾에서 성주출신의 유학자인 송준필이 비록 이진상의 제자들과 현실인식을 같이 하였지만 철학적으로는 관점을 달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송준필이 四未軒 張福樞(1815~1900)와 西山 金興洛(1827~1899)의 학설을 계승하였으며 한주 이진상의 학설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1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의 재전 제자들과 낙중 지역 유현들』(총서8), 계명대학교출판부, 2021 近刊에 수록될 예정임.

1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의 재전 제자들과 낙중 지역 유현들』(총서8)에 수록될 예정임.

4) ‘낙중학’의 범위와 용어에 대한 검토

차제에 ‘낙중’ 또는 ‘낙중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홍원식은 “낙중 곧 낙동강 중류 일대는 ‘三山二江’, 바로 팔공산과 금오산, 비슬산이 웅립해 있고 그 사이로 흘러온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이곳은 일찍이 고려 말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가 주자학의 씨앗을 뿌린 이래 점필재 김종직과 한훤당 김굉필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조선 중기에는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의 이른바 한려학파가 크게 활동하였으며, 조선말에는 다시 이진상의 한주학파가 출현하여 당대 ‘최대·최고’의 형세를 이루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건국 초에 이르기까지 그 여운을 남겼던 곳이다.”¹⁸⁾라고 하면서 ‘낙중’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홍원식은 낙중학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몽주, 길재 이래 사림파를 형성해 간 제현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강과 여헌 이후 조선말 이진상의 한주학파를 위시하여 許傳의 性齋學派, 張福樞의 四末軒學派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⁹⁾ 필자는 낙중학의 범위에 대한 홍원식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 지역의 학문전통을 지나치게 한강과 여헌 두 사람 중심으로 고착화해서는 곤란하며,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영향력보다는 이 지역의 특수성, 기질, 학문전통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낙중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낙동강 중류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넘겨두더라도 한문의 관용적인 의미로 ‘낙중’이

1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4쪽, ‘책을 펴내며’ 참조.

19) 홍원식, 『영남유학과 낙중학』(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총서1), 17쪽 참조.

라는 말이 낙동강 중류지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洛上, 洛中, 洛下라고 할 때의 ‘상·중·하’는 상류, 중류, 하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 ‘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上’이라는 한자어는 ‘강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논어』에서 언급되는 汶上은 ‘문수 상류’가 아니라 ‘문수 가’를 의미하고,²⁰⁾ 川上은 ‘내[川] 상류’가 아니라 ‘냇가’를 의미한다.²¹⁾ 그리고 한자어로 ‘낙중’이라는 말은 ‘낙양 도성 안’ 또는 ‘서울 안[京中]을 의미한다. 낙동강과 관련하여 굳이 낙중지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낙동강 중류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낙동강의 도성 안, 즉 ‘상주(낙양)’ 지역을 일컫는 말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용례는 중국의 洛陽과 일본의 京都를 ‘낙중’이라고 칭했던 사실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낙하’라는 용어 또한 낙동강의 하류가 아니라 서울 인근지역[경기]을 가리키는 용례로 사용되었다. 湖洛論爭에서 ‘湖’가 韓元震이 거주하던 湖西 즉 충청지역을 의미한 것에 반해 ‘洛’은 李柬이 거주하던 洛下 즉 경기지역을 지칭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성리학적 전통을 ‘성주문화권’이라는 명칭으로 개괄하기도 하고,²²⁾ ‘江岸學’이라 부르기도 한다.²³⁾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용어 또한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성주문화권’이라는 용어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주’라는 지역적 용어가 대구와 그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강안학’이라는 용어는 비슷한 학풍을 지닌 경산·청도·영천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 『論語』, 「雍也」. “季氏使閔子騫爲費宰.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 참조.

21) 『論語』, 「子罕」.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참조.

22)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朝鮮時代史學報』, 37집, 朝鮮時代史學會, 2006), 142~143쪽 참조.

23)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308쪽 참조.

필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에서 기술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지역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대구권 성리학’²⁴⁾이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²⁵⁾ 그렇지만 ‘낙중학’, ‘성주문화권’, ‘강안학’, ‘대구권 성리학’이 가리키는 지역적 범위와 학문적 정체성이 대부분 비슷한 외연을 가리킨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3. 낙중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연구방향 제시

1) ‘선산·구미지역의 도학·남명학과 낙중학’의 연계성 탐색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은 ‘自得’의 공부를 강조하는 조선 초기의 분위기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풍은 선산·구미지역의 도학자인 松堂 朴英(1471~1540)과 이 지역 출신의 학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박영은 鄭鵬(1467~1512)을 매개로 하여 ‘道學’에 나아가게 되는데, 정봉은 김굉필의 제자로서 박영과 동향 출신의 학자이다. 그런데 정봉과 박영의 교학과정에서 心得의 공부와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4) ‘대구권’과 ‘대구지역’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구분된다. ‘대구지역’이라 할 때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서 대구광역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성주와 칠곡 등 대구 인근지역에 속했으나 현재는 대구에 편입된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대구권’이라고 할 때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대구와 인근지역 즉 대구, 선산(구미), 성주, 고령, 칠곡 등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하는 ‘대구권’이라는 말은 현재의 대구지역을 포함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하는 인근지역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25)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심산, 2021), 19~24쪽 참조.

박영의 학문은 力行에 바탕을 둔 體認과 自得의 공부라 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학풍은 한 세대 이후의 학자인 남명 조식에게서 강하게 확인된다. 남명이 작고하자 史官은 그의 학풍을 평하여 기술하기를, “조식의 학문은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고 致用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是非를 논하거나 변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경서를 풀이해 준 적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²⁷⁾라고 하였다. 즉 남명이 마음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문인들에게 강학할 때에도 스스로 터득하게 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이다.

그런데 자득과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의 사상과 관련하여 송당 박영의 학풍을 주목해야 한다. 남명과 송당의 문인들 간에는 깊고 폭넓은 교유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남명학과와 송당학과 간에는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송당의 제자 중에서 成運(1497~1579), 申季誠(1499~1562), 李恒(1499~1576), 崔應龍(1514~1580), 權應仁(1521~?) 등이 남명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었다. 특히 남명 조식, 화담 서경덕과 더불어 三處士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곡 성운은 남명의 가장 친밀한 벗이었으며, 남명이 직접 속리산에서 은둔하고 있던 성운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신계성도 남명에게 깊이 인정받은 인물이다. 남명은 『處士申君墓表』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고을에 인재가 많은데, 그 중에 신군이 첫째라네.”라고 하며 신계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찍이 黃俊良은 스승 이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凝川(밀양)에 사는 처사 신계성이 있는데, 평상이 뚫어지도록 40여 년 동안 학문을 닦아 自得한 功이 많습니다. 남명 조식이 그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니,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 그 사람됨을 보려고 합니다.”²⁸⁾라고 하였다.

26) 장윤수, 「송당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한국학논집』, 제6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365쪽 참조.

27) 『朝鮮王朝實錄』, 宣祖修正實錄5年(1572년, 壬申年), 1월1일(戊午) 條.

그리고 남명학과와 송당학과 사이에는 일치하는 성향이 많다. 우선, 송당학과의 학자들에게서 무인의 기질과 호방한 성품이 크게 부각되는데, 정봉과 박영이 지녔던 무인의 기질은 특히 제자 成運과 李恒에게 있어서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出仕보다는 處士로서의 삶을 더 선호하였으며, 대장부로서의 기개를 드러냈다. 또한 정봉과 박영의 영향으로 인해 경전 중에서 특히 『대학』을 강조하고 道學에 대한 자각심과 自得의 공부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특징은 남명에게서도 그대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득과 실천의 학풍은 한강 정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은 평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독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章句를 표절하여 문장이나 만들고 과거시험에 급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현의 경전을 읽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體認’이고 둘째는 ‘體察’이고 셋째는 ‘體驗’이고 넷째는 ‘體行’이다. 만일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글의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없을 것인데 더욱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따라 한다는 옛사람의 비판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²⁹⁾라고 하였다.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네 가지 법 즉 四體法은 한강의 실천과 자득의 학문관을 잘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러한 학풍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낙동강 중류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대구 출신의 유학자 崔興遠(1705~1786)의 경우에 분명하게 확인된다. 최흥원은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의심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玩味하게 되면 文理가 저절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는 스스로 생각해

28) 『錦溪集外集』卷7, 書: ‘答退溪先生書’. “凝川有申處士季誠, 穿牀四十餘年, 多有自得之功. 建中嘗稱爲師, 早晚一叩, 亦欲見其爲人矣.”

29) 『寒岡言行錄』, 卷1, 類編: ‘讀書’. “先生於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取科第而已. 讀聖賢經傳,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於吾身心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

서 깨닫고자 하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다.”³⁰⁾라고 하였다.

19세기 성주 출신의 성리학자인 凝窩 李源祚(1792~1871)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원조는 文敬忠(1494~1555)의 『墓誌銘』에서 “남명 조선생은……일찍이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문경충의 학문은 송당 박영 이후 처음으로 군자다운 사람임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문경충은 성실하게 篤學하고 연마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송당 박영과 일제 이항이 뜻을 둔 業이다.”라고 하였다.³¹⁾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하나는 남명이 송당 박영을 군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남명과 송당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낙중지역의 대표적인 사림세력의 하나인 星州都氏 문중의 학문적 연원에서도 송당의 학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都聖俞(1571~1649)와 都汝俞(1574~1640)가 송당 박영의 제자인 松溪 權應仁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권응인은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는 평소 우리나라에서 시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남명 조식이라고 칭송했을 만큼 남명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권응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도성유는 “어려서 권응인에게 수학하였다. 그리고 나서 낙재 서사원에게 나아가 배웠고, 정구의 문하에서 학업을 이루었다.”³²⁾라고 하였고, 도여유 또한 “10세 무렵에 권응인에게 나아가 수학했는데, 단정하게 거처하며 외우고 읽어 일찍이 무리들과 어울려 놀지 않으니, 스승 권응인이 그를 매우 훌륭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하였다.”³³⁾라고 하였다. 도여유는 평소 자득의 공부를 강조하여 말하기를

30) 『百弗庵言行錄』卷1, 年譜: ‘英宗大王元年乙巳(1726年) 3月’ 條 참조.

31) 『凝窩集』卷18, 墓碣銘: ‘四美亭文公墓碣銘’. “南冥曹先生……嘗謂其門人曰, 文兼夫學問, 朴松堂後始見, 君子人也……藝藝乎篤學實好則又朴松堂, 李一齋之志業也.”

32) 『養直集』卷3, 附錄: ‘行狀’. “少受學于權松溪應仁, 既而就正于樂齋徐先生思遠, 卒業于文穆公鄭先生述之門.”

“학문은 자득하기를 귀하게 여기니, 자득하면 옛 사람들의 千言萬語가 황홀하게 친히 듣는 듯하여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여서, 이른바 ‘귀로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학문’[口耳之學]일 따름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³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득과 실천을 중시하는 선산·구미지역의 학풍과 남명의 학풍이 후대 대구지역의 학자들에게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스스로 체득하고 철저히 수행하는 도학과의 공부법은 본래 성리학이 추구하던 공부법이기도 하다. ‘도학’이 추구하던 바의 학문 목표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상적 특징이 철저한 성찰과 실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낙동강 중류지역의 자득적 학풍은 성리학 본래의 공부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선산·구미지역의 도학-여헌 장현광’의 연계성 탐색

여헌 장현광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독창적 사상가로 유명한데,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전 시대의 사상가 그 누구의 사상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갈암 이현일과 같은 영남학파의 학자들로부터도 매서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송시열은 여헌의 학문에 대해 평하면서 “그 연원을 후생이 감히 알지 못한다.”³⁵⁾라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장현광의 학문 연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다만 自得處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어떠

33) 『小山集』卷13, 行狀: ‘鋤齋都公行狀’. “及就傳, 受學于權松溪應仁, 端居誦讀, 未嘗與同隊遊戲, 松溪甚器愛之.”

34) 『小山集』卷13, 行狀: ‘鋤齋都公行狀’. “學貴自得, 自得則古人千言萬語, 悅若親聞而爲我有矣, 否則書自書我自我, 所謂口耳之學, 何益之有.”

35) 『宋子大全』卷102, 書: ‘答沈德升’. “張旅軒淵源, 後生有所不敢知耳.” 참조.

한 사상이든 역사적 과정 속의 한 요소이고, 그 의미들이 항상 일정한 역사적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제대로 규정되어 질 수 있다. 장현광의 사상 또한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유체계일 수는 없다. 그의 사상적 연원을 면밀히 고찰해보면, 선산·구미지역의 학문 전통이 내재해 있고 그 중심에 송당학파의 영향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장현광은 박영이 죽고 나서 태어났지만, 박영의 제자 및 후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의 문집 곳곳에서 박영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현광은 선산지역의 선배 유학자들에 대해 상당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야은 길재에 대해서 회고하는 마음이 컸다. 그는 길재가 심은 대나무를 보고 이를 기념하는 글을 짓기도 했다.³⁶⁾ 그 외에도 사육신 河緯地, 생육신 李孟專을 비롯한 선산지역의 저명한 유학자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그들의 후손들과도 각별한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11세 때에 정봉의 아들인 鄭愨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각은 그를 보고 “기상이 웅대하여 이 아이는 반드시 특출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그렇지만 장현광의 사상 연원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학자는 바로 송당 박영이다. 장현광은 박영의 님시터를 찾아가서 느낀 심중의 회포를 읊기도 했고,³⁷⁾ 송당 문인들과 후손들의 묘갈문을 쓰면서 송당 박영과의 師承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연보』에 의하면, 장현광의 스승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盧守誠과 張岫 두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박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현광은 9세 되던 해인 1562년(명종 17년)에 모친의 명에 의해 선산에 사는 姊兄 노수함에게 나아가 글을 배웠다. 노수함 또한 박영의 문인이기 때문에 장현광은 박영의 再傳 제자가 되는 셈이다. 노수함은 평소 자제들에게 박영의 모습을 전하면서 “선생께서는 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시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깨끗하게 앉아 ‘마음이 사심 없고 신

36) 『旅軒集』卷1, 賦: ‘冶隱竹賦’.

37) 『旅軒集』卷1, 詩○五言絕句: ‘題朴松堂漁磯’ 참조.

령하여 어둡지 않으면, 온갖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하게 된다'[虛靈不昧, 具衆理, 應萬事]는 구절을 서너 번 암송하고 나서야 다른 책을 보셨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면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여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너희들도 마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³⁸⁾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장현광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노수함의 아들인 盧景任은 장현광의 문인이기도 한데, 그는 일찍이 한국 도학의 계보를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봉-박영’으로 강조한 바 있다.³⁹⁾

장현광은 14세 되던 해인 1567년(명종 22년)에 문중사람[四從叔] 張岫(1532~1571)에게 수학하였다. 장순은 이언적, 이황, 고응척, 정구 등과 교유하였으며, 박영의 문인인 朴雲, 金就文 등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장순은 박운의 손자인 朴成一을 사위로 맞기도 했다. 장순은 특히 북송시대의 유학자인 橫渠 張載가 지은 『正蒙』과 『西銘』을 읽고 그 뜻에 감동받아 ‘횡거를 양모한다’는 뜻에서 ‘鶴渠’라고 스스로 호를 지었다. 장횡거와 성이 같고 자신이 鶴山 기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횡거의 ‘거’자를 취해 ‘학거’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장순은 소옹의 『皇極經世』를 읽고 그 뜻을 계승하여 『皇極要義』를 지었다. 그런데 장현광은 일찍이 『황극경세』를 평하여 “이 한 권의 책은 천지와 더불어 마땅히 종말을 함께 할 것이다.”⁴⁰⁾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리고 장현광은 15,6세 되던 해에 장순의 책상 위에서 『황극경세』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박영의 집안에서 보관해오던 책이었다고 한다.⁴¹⁾ 장현광이 장순의 가르침을 받아 읽어보니 마음에 맞았다고 하였다. 장순과 장현광이 장재와 소옹의 가르침을 강조한 배경에는 바로 박영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8) 『敬菴集』卷4, 遺事: ‘先府君宋菴公遺事’.

39) 『松堂集』卷3, 附錄: ‘道統相承次第錄’. 이 기록은 盧景任의 『嵩善志』를 인용한 것이다.

40) 『旅軒集』卷1, 賦: ‘觀物賦’. “然皇極經世之一書, 當與天地而終始.”

41) 『旅軒集』卷10, 附錄: ‘趨庭錄[子應一]’. “吾十五六時, 見鶴渠案上有皇極經世書, 問之則乃朴松堂家藏內賜冊子也. 因請讀之, 如有所會心者然.” 참조.

權璉夏(1813~1896)는 “옛날 장횡거는 일찍부터 무예의 길에서 벗어나 范仲淹의 권유로 『중용』을 읽은 후에 도에 이르게 되었고, 박영 또한 무인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정봉에게서 『대학』을 배워 깨달음의 계기로 삼았다. 유학의 위대한 도덕군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바꾸어 뜻을 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앞·뒤 현인의 같은 과정인 것이다.”⁴²⁾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무인에서 문인의 삶으로 전환한 박영을 일컬어 ‘동방의 횡거’라고 하였다. 이것은 박영의 삶뿐만 아니라 사상도 장재의 사상과 유사성이 많음을 말해준다.

한편, 박영은 강절 소옹의 학문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은 시에서 “소강절 선생 그윽한 곳에 거처하며, 옛 성현 남긴 글을 초당에서 읊조리네.”⁴³⁾라고 하였고, 「空中樓閣記」에서는 소옹 철학의 오묘한 의미를 풀이하였다.⁴⁴⁾ 장현광 또한 곳곳에서 소옹의 인품과 학문을 칭송하였으며, 「空中樓閣賦」라는 글에서 소옹과 그의 학문을 칭송하였다.⁴⁵⁾ 장현광의 제자인 李彦英은 “선생(장현광)의 도덕과 문장은 하늘이 만물을 덮어 주고 바다가 온갖 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담소하며 세속 사람들과 친함은 마치 소강절 선생과 같다.”⁴⁶⁾라고 평가하였고, 아들인 張應一은 아버지가 평소 소옹의 「四事吟」을 손수 써서 벽에 걸어놓고 이를 목상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⁴⁷⁾ 이러한 사례는 모두 장현광이 평소 소옹의 사상을 귀중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당시 한국 성리학계의 학풍,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학문 분위기에서 본다면 장재와 소옹은 결코 주류 사상가가 아니다. 주류 사상가의 범위에는 어디까지나 주희와 정씨 형제 같은 심성론자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선산·

42) 『松堂集』卷4, 附錄: ‘精舍重建記’.

43) 『松堂集』卷1, 詩: ‘雜詩四首’(其四).

44) 『松堂集』卷1, 記: ‘空中樓閣記’ 참조.

45) 『旅軒集』卷1, 賦: ‘空中樓閣賦’ 참조.

46) 『旅軒續集』卷9, 附錄: ‘記聞錄’(李彦英).

47) 『旅軒續集』卷10, 附錄: ‘趨庭錄’(子應一) 참조.

구미지역의 학풍은 이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의 학자들은 심성론적 사유보다는 우주론적 형이상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소옹, 주돈이, 장재 같은 우주론적 철학사유를 펼친 학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박영과 장현광뿐만 아니라 그 시대 선산 지역의 학풍이기도 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明鏡堂’의 詩會이다. 1537년(중종 32년)에 박영의 제자인 朴雲은 ‘明鏡堂’을 짓고 나서 박영, 이언적, 김취성과 함께 어울려 시를 읊었다. 명경당에서 가진 네 학자들의 詩會는 당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우주론적 철학사유에 심취해 있던 당시 선산·구미지역의 학풍과 학문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李滉, 宋純, 高應陟 등 여러 명의 학자들이 次韻詩를 남겼는데, 장현광 또한 명경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장현광은 명경당의 堂主이자 자신의 외손인 朴慄을 격려하기 위해 명경당과 관련한 몇 편의 글을 직접 짓기도 했다.⁴⁸⁾

3) 낙중학의 학문적 경향성 탐색

(1) 낙중학과 ‘無極而太極論’

송대 유학을 대표하는 朱熹와 陸九淵은 일찍이 몇 차례의 논쟁을 통해 학문적 차이를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太極圖說」에 관한 논쟁이다. 두 사람은 周惇頤의 「太極圖說」 가운데 첫 구절인 ‘無極而太極’에 관해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상의 입장차이라기 보다는 程朱理學과 陸王心學 간의 세계관적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징표이다. 그런데 ‘무극이태극’에 관한 논의가 성리이론이 풍부하지 않은 낙동강 중류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8) 『旅軒集續集』卷1, 詩: ‘次諸君韻, 題明鏡堂’; 『旅軒集續集』卷4, 雜著: ‘題明鏡堂四先生空字絕句後’.

1517년(중종 12년)에 경주 지역의 학자인 孫叔暉과 曹漢輔 사이에서 ‘무극이태극’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당시 20대의 젊은 학자였던 이언적은 자신의 외숙[孫叔暉]과 논쟁을 펼치던 조한보를 상대로 하여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언적은 주희의 견해에 근본하여 앞서의 두 학자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년 뒤인 1537년(중종 32년)에 朴雲이 네모난 연못을 만들고 ‘명경당’을 짓게 되면서 朴英, 李彦迪, 金就成과 함께 어울려 시를 읊었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무극이태극’과 관련한 본체론적 시를 지었다. 여기서 송당 박영은 “형상이 있다하여 있는 게 아니며, 형체가 없다하여 없는 게 아니다.”⁴⁹⁾라고 하였다. 그는 「空中樓閣記」에서도 우주만물의 생성본체(태극)를 묘사하면서 “있다하면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다하면 없는 것 같지만 있다.”⁵⁰⁾라고 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학자들 모두가 ‘무극이태극’에 관한 형이상학적 담론에 일가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박영의 문인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박영의 제자인 선산 출신의 金就成은 박영의 문하에 들어가 存心養性의 방법과 觀物省察의 오묘한 뜻을 터득하고, 無極과 太極의 妙用을 배워 그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의 『墓誌文』에 기록되어 있다.⁵¹⁾

‘무극이태극’이라는 본체론적 언급에 대한 관심은 이후 지속적으로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자들에게 이어진다. 徐思遠은 1601년(52세)에 저술한 「工夫筭錄」에서 무극과 태극에 관한 요점을 비롯하여 理, 心, 性, 情, 敬, 修養 등 성리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선현의 학설에 기초해서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며, 孫處訥은 『象山集』의 ‘무극이태극’에 관한 이론이 주희의 설과 같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⁵²⁾ 그리고 도성유는 ‘總論無

49) 『松堂集』卷1, 詩: ‘明鏡堂次松堂晦齋兩先生步金成之韻’. “有象非爲有, 無形不是空, 實中知是實, 功外莫尋功.”

50) 『松堂集』卷1, 記: ‘空中樓閣記’.

51) 『久庵集』卷2, 墓誌: ‘伯氏眞樂堂先生墓誌’. “松齋發無極太極之妙以教之, 先生脫然契悟, 松齋亟稱之曰, 君之才, 應不下古人. 自是潛心大業, 規模根本已定矣.” 참조.

極太極’에서 陸九淵 형제의 이론을 비판하고 정주계열의 道統論을 지지하였다.⁵³⁾ 또한 18세기 칠곡지역의 유학자인 李東汲(1738~1811)은 『無極太極說』에서 ‘무극’을 태극의 맨 처음 상태로 설명하고 ‘태극’을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자 본체로 설명하였다. 즉 태극은 세상 만물이 생기는 본원이기 때문에 마치 온갖 강물에 비치는 달이 하늘에 떠 있는 한 개의 달이듯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태극이라는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天·地·人 三才에 참여하게 되고 천지의 化育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⁵⁴⁾

이처럼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자들이 폭넓게 ‘무극이태극’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우주론적 사유에 관심이 많았던 선산·구미지역 도학과의 학문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개방적인 학풍과 독서록

일찍이 퇴계는 남명의 『遊頭流錄』을 읽어본 뒤 道家類의 풍취가 있다고 비판했다. 남명의 학풍에는 확실하게 老莊의 풍취가 있었으며, 남명은 특정한 학문과 학파로 자신을 속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학풍은 조선의 유교문화에 있어서 낙중지역에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다.

한강 또한 자유롭고 다양한 학풍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禮學에 조예가 깊어 예학 발전의 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강은 예설 이외에도 地方志, 역사서, 醫書 등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강의 문인 張興孝는 스승의 독서 목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생[鄭述]은 異端의 서적조차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까닭을 알고 난 후에는 더이상 보려 하지 않았다.”⁵⁵⁾라고 증언하였다.

52) 『慕堂日記』, 辛亥(光海君3年), 慕堂59歲, 3月15日條. “話康侯, 論象山集無極太極說, 與朱先生不相似.” 참조.

53) 『養直集』卷1, 詩: ‘總論無極太極’(二首) 참조.

54) 『晚覺齋集』卷3, 雜著: ‘無極太極說’ 참조.

55) 『寒岡言行錄』卷1, 類編: ‘讀書’. “異端之書, 亦無不涉獵, 究知其所以爲異端之故, 然後輒不復看.”

이 말에서 보듯이 한강과 그 제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적 독서경력을 쌓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헌 장현광의 학풍 또한 개방적이었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氣學的인 학풍을 예로 들 수 있다. 여헌의 사상이 갖는 기학적 측면은 특히 道의 인식문제와 수양론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여헌은 우주본유의 근원적 실체인 道는 心會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심회는 정기[精]를 모으고 神을 응결하여 오랜 세월 쌓아야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여헌의 이러한 수양법은 程朱 계열의 수양법과는 차별화되는 기학적 방법이다. 이것은 곧 장재가 『正蒙』에서 주장하는 入神과 存神의 수양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낙재 서사원의 독서록에서도 개방적 학풍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독서목록에는 程朱 계열 성리학의 경전 이외에도 氣學과 道家 관련 서책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⁵⁶⁾ 예를 들면 1594년 10월에 모당 손처놀이 『花潭集』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⁵⁷⁾ 1604년에 망우당 곽재우가 찾아와서 『悟眞篇』, 『金丹大成集』을 빌려갔다는 기록⁵⁸⁾ 등이 있다. 그리고 서사원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臣이 일찍이 氣學에 종사했던 적이 있습니다.”⁵⁹⁾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사원이 일부 한국성리학자들이 보여주는 ‘순혈주의적 道統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말해준다.

낙동강 중류지역의 개방적인 학풍은 朴而章(1547~1622)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이장은 작고하던 해인 1622년(76세)에 門生들에게 周·張·程·朱의 글을 읽게 하였다.⁶⁰⁾ 그는 23세 때에 남명을 찾아 德山에 갔으며, 그 뒤 다시 蘇齋 盧守愼을 찾아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남명과 소재 두 사람은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풍을 지닌 학자로 유명하

56) 『樂齋集』卷2, 賦: ‘讀書如鍊丹’, ‘氣聽’ 참조.

57) 『樂齋年譜』卷1, 甲午年(1594년, 선조27) 10月 條 참조.

58) 『樂齋年譜』卷1, 甲辰年(1604년, 선조37) 참조.

59) 『樂齋集』卷2, 賦: ‘讀書如鍊丹’, “臣嘗從事於氣學” 참조.

60) 『龍潭集』, ‘年譜’ 참고.

다. 그 외에도 고령 출신의 한강 제자인 李起春(1541~1597) 또한 만년에 張載의 학문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고령인물지』에 기록되어 있다.⁶¹⁾

낙동강 중류지역의 이러한 개방적인 학풍은 근현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18세기 칠곡지역의 유학자인 李東沆(1736~1804)은 독서법을 거론하면서 유가의 서책들과 함께 『莊子』를 읽을 것을 당당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동항의 스승이 백불암 최흥원이고, 백불암의 5대조인 대암 최동집이 한강의 문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개방적인 학풍의 연속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891년에 제정된 星山鄉約의 講規에서는 淵源正學에 속하는 서책을 언급하면서 邵雍의 『皇極經世』와 張載의 『正蒙』도 함께 포함시켰다.⁶²⁾ 장재의 기학을 중시하는 전통은 晚求 李種杞(1827~1902)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주학파의 郭鳴遠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마음은 곧 理와 氣의 합이다’[心合理氣]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장재의 학설을 인용하였다.⁶³⁾ 만구는 ‘맑고 한결같은 상태가 氣의 근본’이라고 하는 장재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氣의 精爽을 理로 해석하는 한주학파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⁶⁴⁾

(3) 여행기 저술과 지리지 편찬

낙동강 중류지역의 學脈圖를 보면 남명과 퇴계는 말할 것도 없고, 기호 지역의 남인학파, 심지어는 老論 계열의 학맥까지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남명학파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거의 멸절의 상태에 이르게 된 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남명의 유풍이 확인된다. 戊申亂 이후에 외적으로는 퇴계학파가 이 지역의 학계를 주도하지만, 내적으로는 자득과 실천을 특징으로 하는 남명의 자유로운 학풍이 여전히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61)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 161쪽에서 재인용함.

62)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 159쪽에서 재인용함.

63) 『晚求集』卷4, ‘答郭鳴遠’ 19張 참고.

64) 『晚求集』卷4, ‘答尹忠汝曹夏心說簡疑’ 24~25張 참고.

이 지역의 성리학자들 중에서는 남명의 경우처럼 여행기를 쓴 학자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 정구와 그 제자들이다. 한강은 직접 『遊伽倻山錄』을 저술하였으며, 그 제자들도 많은 기행문을 남겼다. 그리고 영정조 시대 대구지역의 학자인 최흥원 또한 『遊伽倻山錄』을 지었고, 그의 제자인 칠곡지역의 학자 이동항은 『方丈遊錄』, 『海山錄』, 『楓嶽總論』, 『遊俗離山記』, 『三洞山水記』를 저술하였다. 이 지역 학자들의 여행기 저술 경향은 정형화된 성리학적 논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행기 저술과 함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리지 편찬에 관한 관심이다. 한강과 여헌은 향촌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地方志’의 편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러한 관심은 문인들에게도 이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여헌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의 문인 申悅道(1589~1659)는 地志에 관한 여헌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갑술년(1634년) 2월, 나는 남산[仁同]에 와서 선생[張顯光]을 뵈고 여러 친구들과 輿地의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생이 분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典籍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니, 이 고을에 살면서 이 고을의 故事를 모른다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각각 地志를 편찬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고는, 나에게 명하여 『聞韶縣志』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聞韶縣(義城의 별칭)의 현령이 되어 자료를 수집할 뜻이 있었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⁶⁵⁾

여헌의 문인들은 스승의 권유에 따라 다양한 地志를 편찬하였는데, 『東京志』(경주), 『聞韶志』(의성), 『京山志』(성주), 『密州志』(밀양), 『鰲山志』(청도), 『一善志』(선산), 『天嶺志』(함양), 『仙槎志』(울진) 등이 구체적 사례이

65) 『旅軒集續集』卷9, 附錄: ‘拜門錄’. “甲戌二月, 來謁于南山, 與諸益語及輿地事. 先生教曰, 吾東載籍不備, 居在此邦, 不知此邦故事, 可乎. 諸君各撰地志, 俾有所勸懲, 可矣. 因命余撰聞韶縣志. 蓋先生嘗宰聞韶, 有意修輯而未就故也.”

다.66) 즉 17세기에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진 ‘地志’의 편찬사업은 한강과 여헌의 實用實事의 학문 경향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가 크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학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여행기 저술, 지리지 편찬, 鄉約 실행⁶⁷⁾ 등의 사례를 연계하여 유기적인 연구를 실행해볼 필요가 있다.

4. 낙중학 연구의 미래지향적 의미

지역학의 정체성 확립은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학은 구체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학을 의도해야 한다. ‘낙중학’ 또한 마찬가지다. ‘낙동강 중류지역’이 지녔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공통된 정신과 문화에 기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적 가치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전자는 역사적 실제성을 말하고, 후자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지향성을 의미한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 모습을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낙중학은 단순히 이 지역 성리학자들에 대한 개괄적 안내 또는 譜學的 지식의 소개에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66) 여헌사상연구회, 『여헌학의 이해: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예문서원, 2015), 183~188쪽 참조.

67) 寒岡 鄭逵와 그의 문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실천의 분야가 바로 鄉約의 실행이었다. 한강은 유교의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鄉約의 실행에 힘썼다. 한강의 실천정신은 문인들에게도 계승되었다. 郭再謙은 『呂氏鄉約』을 제자들과 함께 강습했으며, 徐思遠은 직접 鄉禮를 실행했고, 星州都氏 문중의 제자들도 다수가 鄉約을 통해 鄉村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을 지금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며, 또한 範本的 삶의 행적을 확인하면서 이를 우리들의 현재의 삶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학자들의 삶과 문제의식을 단순히 재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성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의 가치관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학파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훈고의 지식에만 머물며, 자신에게조차 불분명한 형이상학적 담론에 갇혀 있다면 유교 문화의 부흥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교 경전의 교학 지식에 능통하고 관습적 의례에 익숙한 유학자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교양인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현대적 의미의 선비는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고 자신과 차별적인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깨우쳐가는 공부를 우선으로 삼고, 배움과 실천 간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을 미래지향적 학문의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다.

참고문헌

『論語』

『朝鮮王朝實錄』

『敬菴集』(盧景任), 『久庵集』(金就文), 『錦溪集外集』(黃俊良), 『樂齋集』(徐思遠), 『樂齋年譜』(徐思遠), 『晚覺齋集』(李東汲), 『晚求集』(李種杞), 『慕堂日記』(孫處訥), 『百弗庵言行錄』(崔興遠), 『三峯集』(鄭道傳), 『小山集』(李光靖), 『松堂集』(朴英), 『宋子大全』(宋時烈), 『嵩善志』(盧景任), 『養直集』(都聖俞), 『旅軒集』(張顯光), 『旅軒集續集』(張顯光), 『龍潭集』(朴而章), 『凝窩集』(李源祚), 『寒岡言行錄』(鄭述)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
(총서1), 계명대학교출판부, 20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낙중학의 원류, 조선 전기 도학파의 사상』
(총서2), 계명대학교출판부, 20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총서3),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중기의 낙중학,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
(총서4),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파’』(총서5),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말의 낙중학, 한주 이진상의 삶과 사상』
(총서6),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근대 시기 낙중학, ‘주문팔현’과 한주학파의 전개』
(총서7), 계명대학교출판부, 20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의 재전 제자들』

과 낙중 지역 유현들』(총서8), 계명대학교출판부, 2021 近刊.

- 여헌사상연구회, 『여헌학의 이해: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예문서원, 2015.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4.
-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 2021.
- 권연웅, 『『檜淵及門諸賢錄』 小考』, 『韓國의 哲學』, 제1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 구분옥, 『『大邱儒賢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 제11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 구분옥,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溪東 全慶昌」, 『조선사연구』, 제20집, 조선사연구회, 2011.
- 구분옥, 「석담 이운우의 師承과 交遊에 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7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 구분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제11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朝鮮時代史學報』, 37집, 朝鮮時代史學會, 2006).
- 엄연석, 「장현광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성리학적 분합론의 연속성」, 한국동양철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所收, 2021.
- 장윤수, 「송당 박영의 도학적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한국학논집』, 제6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 황병기, 「장현광 『역학도설』과 하도낙서관」, 한국동양철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所收, 2021.

The Achievement and New Task in Nakjung-hak (Philosophy Part)

Jang, Yun-Su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Open-mindedness, Nakjung-hak, Nammyeong-hak, Tao-hak
in Seonsan and Gumi regions, Self-realization, Mugeuk-
Taegeuk

Here, first of all,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philosophy were reviewed among the ‘Nakjung-hak studies’ conducted by the Academia Koreana of Keimyung University over the past 10 years (2010-2020). Furthermore, several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as a new search for future developmental research. The Academia Koreana of Keimyung University’s research projec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awakened interest in academic traditions in the mid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past, and lai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irst of all, research achievements exploring the academic identity of this region are drawing attention, and faithful research on Lee Jin-sang and his disciples is remarkable. However, in order to further advance the discussion of Nakjung-hak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several characteristics and make it a new research topic. First,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tradition of Tao-hak in Seonsan and Gumi regions. It is necessary to intensively explore the academic traditions of this region, the academic similarities of

Nammyeong-hak, Yecheon-hak, and Nakjung-hak, and close exchanges between scholars. Second, as a unique academic trend in the mid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meaningfully examine the exploration of cosmological topics, self-open academic customs, and practical academic attitudes.

(2021.10.20. 접수: 2021.11.19. 수정: 2021.12.06. 채택)

장윤수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張載 氣哲學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로 중국과 한국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E-mail: ysjang@dnue.ac.kr

